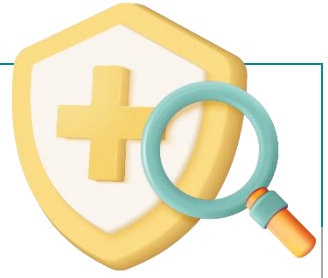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9월 초)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9월 1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때가 되면 이벤트가 있었던 종목부터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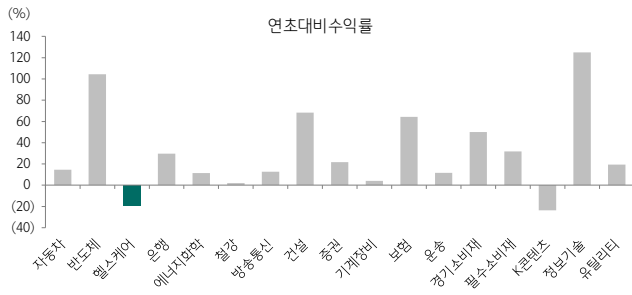
1) 2026년 9월 제약/바이오 산업 Preview

- 8월의 이벤트를 기억해 줘야 하는 이유** 8월은 굵직한 이벤트가 많았다.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HM17321이 Genentech에 총 규모 \$2.3B(약3.2조원), 선금금 8%를 수령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알테오젠은 ALT-B4에 대해 최대 \$365M(약5,219억원)규모의 계약을, 올릭스도 규모는 비공개지만 Hansoh 제약에 2개의 영기서열에 대한 독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SK바이오팜은 Opakalim을 도입하여 엑스코프리 단독 체제에 대한 우려와 Xenon의 Azetukalner 출시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불식시킬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성장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위한 자본을 조달하였다. 상기에 나열한 이벤트는 기업에 긍정적인 요소라 판단하나, 금리 상승이라는 저항에 부딪히며 상승세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한미약품의 Genentech향 L/O 후의 주가 상승 수준은, 6/1일 소네페글루타이드의 Lilly향 L/O 때만큼 실망스럽다. 경기 확장 기반의 고금리,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 소멸로 밸류에이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이니 (8/31일자 이재만 위원의 “무엇을 사서 4분기를 대비할까” 리포트 참고), 제약/바이오에만 다른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렵긴 하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매크로 환경 하에 모든 종목의 상승세가 제한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시장 전체의 상승 분위기가 왔을 때 호재 이벤트가 있었던 종목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상승률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편 투자자에게 종목 선별에 대한 고민을 가중하는 “슬강제”가 9~10월에서 내년 초로 더 늦춰질 전망이다, 종목 선별과 비중 확대가 조금은 더 쉬워진 분위기다.
- 더욱 거세지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관심** Moderna/Merck가 공동개발한 개인 맞춤형 mRNA 항암백신인 intismeran에 대한 임상 3상 INterpath-001 결과가 성공적임을 발표하면서, 국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였다. 당일 상승세가 강했던 종목 중 짚어볼 종목만 살펴 보면 1) 전달체 기술을 보유하고, ‘23년 항암백신을 실제 개발할 목적의 MOU를 체결한 바 있었던 삼양바이오팜, 2) 선형의 mRNA 보다 안정성이 높은 원형 RNA 기술을 보유한 알지노믹스, 3) LNP 및 mRNA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에스티팜이 있다. 이들이 Moderna/Merck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임상 성공은 항암제 시장에 새로운 modality의 등장을 알리는 것으로서, 흑색종에 그치지 않고 폐암,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 주요 고형암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항암백신에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들도 증가할 것이라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BioNTech/Roche는 단독 보조요법으로서 대장암 백신2상을 진행했으나 효능 부족으로 중단했는데, Moderna/Merck는 면역관문저해제인 키트루다와 병용하여 임상을 진행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oderna/Merck가 개발 중인 Intismeran autogene은 IM(근육)주사라 알테오젠 기술이 적용된 Qlex와의 병용으로 개발할 이점이 크다. (BioNTech/Roche의 Autogene cevumeran은 IV). Moderna/Merck가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LBA를 제출하고 학회에서 발표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니, 주요 항암 학회인 10월ESMO에서 발표할 가능성에 주목하자.

2) 2026년 9월 추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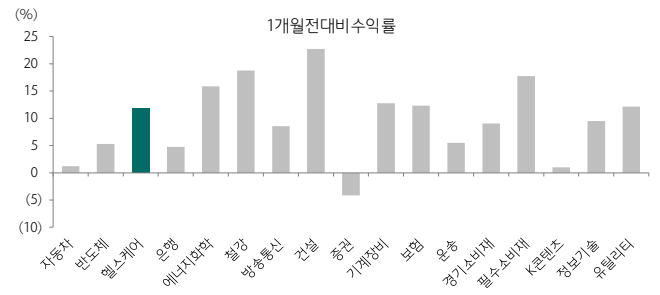
- 9월 코스피 Top pick: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유상증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29년 내 빠르게 발표될 CAPEX의 확대 공시의 예고편이라 판단되어, 단기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천한다. 2) SK바이오팜은 2nd 프로젝트로써 Opakalim을 도입하였고, 하반기 탑라인 공개는 기대할만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 9월 코스닥 Top pick: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1) 알테오젠은 추가 기술이전과 국민성장펀드의 수혜, 슬강제 1군으로 가장 유력한 기업으로써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다. 2) 리가캠바이одо 서브라이선스로 하반기 내 추가 L/O 가능성 높은 분위기이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도표 1.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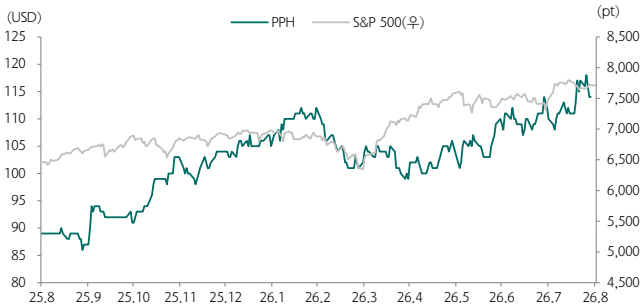
주: 8/31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2. 섹터별 1개월전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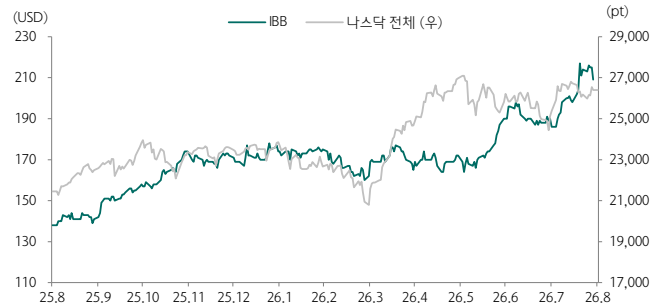
주: 8/31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3.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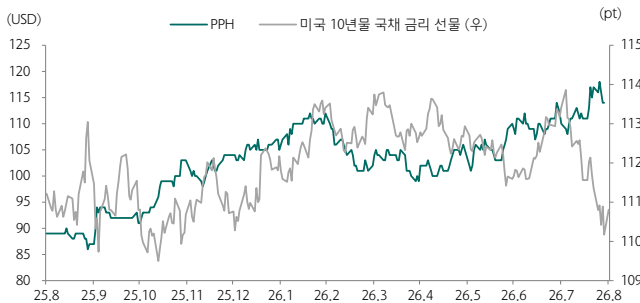
주: 8/31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19.02%), MSD(10.99%), Novartis(10.05%), Pfizer(5.03%), BMS(4.98%), Novo Nordisk(4.96%), McKesson(4.66%), AbbVie(4.50%), J&J(4.37%), CSK(4.06%)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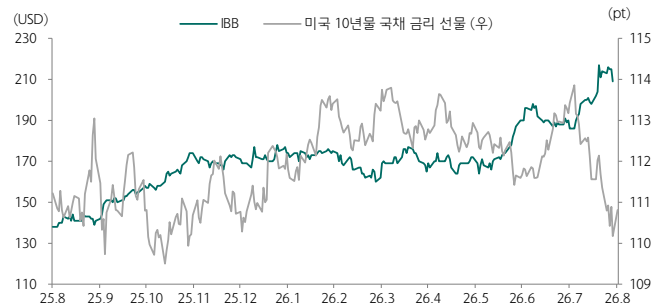
주: 8/31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Amgen(8.53%), Vertex Pharmaceuticals(8.04%), Gilead(7.20%), Regeneron(5.70%), Argenx(3.78%), Moderna(3.57%), Natera(3.17%), Revolution Medicines(2.82%), Illumina(2.31%), Biogen(2.2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과 P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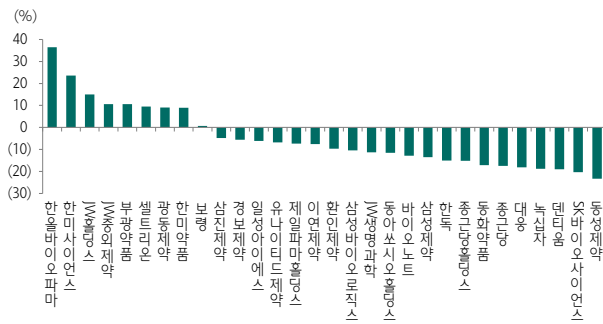
주: 8/31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6.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과 I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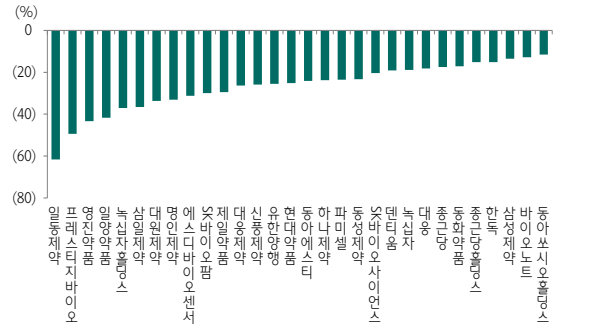
주: 8/31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7.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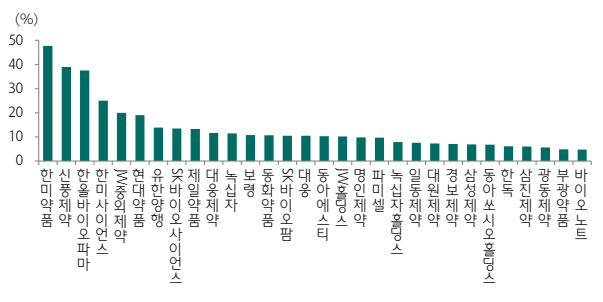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8/31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8.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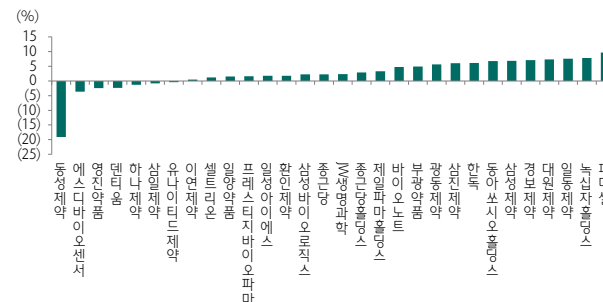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8/31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9.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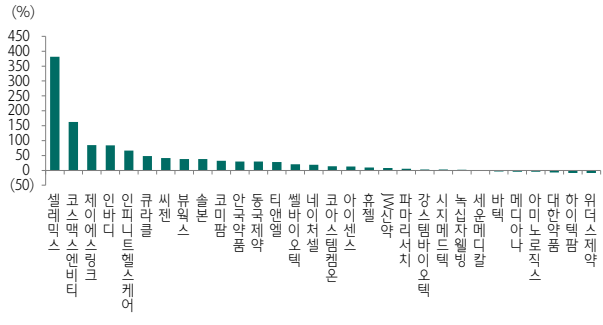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8/31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0.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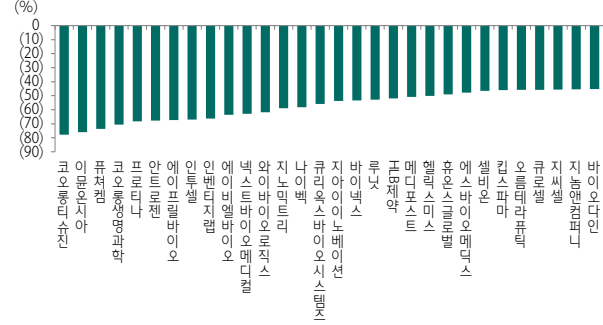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8/31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1.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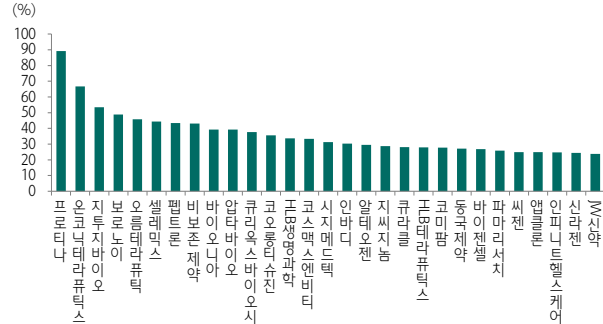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8/31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2.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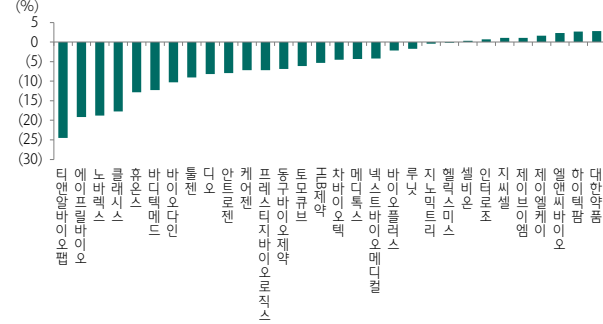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8/31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3.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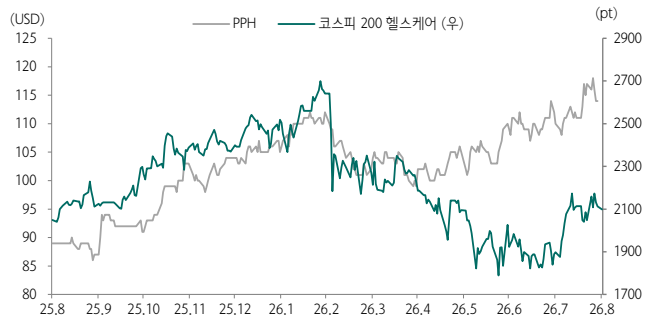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8/31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4.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주: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8/31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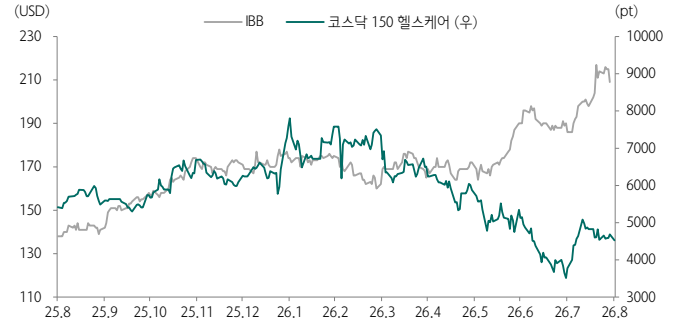
도표 15. 미국 제약사 ETF(PPH)와 코스피200헬스케어 비교



주: 8/31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19.02%), MSD(10.99%), Novartis(10.05%), Pfizer(5.03%),
 BMS(4.98%), Novo Nordisk(4.96%), McKesson(4.66%), AbbVie(4.50%), J&J(4.37%),
 GSK(4.06%)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6. 미국 바이오 ETF(IBB)와 코스닥150헬스케어 비교



주: 8/31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Amgen(8.53%), Vertex Pharmaceuticals(8.04%), Gilead(7.20%),
 Regeneron(5.70%), Argenx(3.78%), Moderna(3.57%), Natera(3.17%), Revolution
 Medicines(2.82%), Illumina(2.31%), Biogen(2.2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지난 2주 간 주요 이슈 및 관련 기업 코멘트 (Biweekly 발간 기준일 8/18 이후)

[8/17] AstraZeneca, PD-1×CTLA-4 이중항체 volrustomig 폐암 3상 중단

- volrustomig+화학요법의 1L 전이성 NSCLC 치료제로서 eVOLVE-Lung02 (3상) 중단 결정함. 키트루다+화학요법 병용과의 비교 임상이었음. 중간 결과를 분석한 후 1차 지표인 PFS와 OS를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중피종 등 다른 암종에 대해서는 3상을 계속할 계획.

[8/18] Sandoz, Henlius의 바이오시밀러 3종에 대해 글로벌 권리 확보 (최대 \$322M 규모)

- 3종 바이오시밀러는 evolocumab(Repatha), belimumab(Benlysta), cetuximab(Erbix)임. 개발 초기 단계로, Erbitux만 최근 1상에 진입했고, 나머지는 전임상 단계. 이번 계약으로 최대 10개의 단클론 항체 및 ADC 바이오시밀러까지 확대될 수 있음. Henlius가 개발·생산·공급을 담당; 산도즈는 글로벌 상업화를 담당할 것.
- 이로써 산도즈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은 39개로 확장됨.

[8/17] Lilly-OmniAb, ion-channel 신약 공동개발 계약(최대 \$370M 규모)

- OmniAb이 보유한 항체 발굴 플랫폼인 OmniRat 기술을 활용할 예정으로, 타깃과 모달리티는 비공개. OmniAb은 '22년 Ligand Pharmaceuticals로부터 분사한 기업으로, J&J의 BCMAxCD3 이중항체인 Tedistamab(Tecvayli)을 개발한 사례가 있음. 그 외 GSK, Roche와도 협력 사례를 보유.
- ion-channel은 세포의 전기적 신호와 관련되어 종류가 다양하고 작용 기전 및 관련 질병의 범위가 광범위함. 신경, 통증, 대사질환 등 여러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 가능.

[8/18] BioMarin, 저인산효소증(HPP) 치료제 개발사 Alestra Therapeutics 인수(최대 \$490M 규모)

- 선금금 \$275M, 마일스톤 최대 \$215M. 주요 파이프라인은 ALPL 유전자 변이 희귀 골질환인 저인산효소증(HPP) 치료제인 ALE1. 무기 피로인산(PPI) 수치를 낮추는 경구 저분자 치료제로 현재 1/2a상 진행 중이고, 내년 1월까지 환자 120명 등록 목표. 현재 HPP 치료제는 모두 주사제로, ALE1 개발 성공시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가 됨.
- 두 회사간 합의에 따라, Alestra는 거래 완료 전 ALE1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임직원을 신설 법인으로 스펠오프할 예정.

[8/18] LEO Pharma(DK), Tanabe(JP)의 dersimelagon 글로벌 권리 도입 (최대 \$435M 규모)

- 선금금과 단기 마일스톤을 포함하여 최대 \$435 규모(로열티 구조). 희귀 유전성 광과민질환 치료제로 1일 1회 경구 투여 MC1R 작용제인 저분자 화합물. 적혈구조형성 프로토포르피린증(EPP), X-연관 프로토포르피린증(XLP) 타깃.
- 환자 165명 대상 글로벌 3상을 완료하고 올해 6/30일 FDA 허가 신청한 상태.

[8/19] 네오이뮤텍, 미국 바이오텍 Tolerance Bio에 융선 기능부전 관련 적응증 치료제 기술이전 (최대 \$260M 규모)

- 미주 및 유럽 지역 독점 조건, 계약금으로 Tolerance Bio의 완전 희석 기준 지분 4%를 수취, 임상개발 및 매출 달성에 따른 마일스톤 최대 \$260M 수령 가능 (로열티 별도). 기술이전 된 파이프라인은 NT-17(efineptakin alfa)로, HIV 감염인 면역 재구성 등 융선 기능부전 관련 적응증으로 개발 중.
- Tolerance Bio는 Provention Bio 창업진이 설립한 바이오 기업으로, CEO인 Francisco Leon은 1형 당뇨병 치료제 TZIELD를 개발하여 FDA 승인을 획득하고, Provention Bio를 '23년 Sanofi에 매각한 이력을 보유

[8/21] 에이프릴바이오, 룬드벡이 'Lu AG22515'을 TED로 개발을 중단하며 추가 급락

- CD40L 저해제인 Lu AG22515(APB-A1)를 TED로 개발하는 것을 중단 선언. 임상1b상에서 중간분석 결과 임상적 지표에서 충분한 치료효과를 보이지 못함을 확인한 후의 결정. 다만 TED에서만 중단하는 것이고, 다른 적응증에서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계획.
- Lu AG22515(APB-A1)는 '21년10월 최대 \$448M 규모로 룬드벡에 기술이전한 파이프라인임

[8/19] Lilly, Amplitude와 차세대 taRNA 백신 플랫폼 공동개발 계약(규모 비공개)

- taRNA(trans-amplifying RNA) 기반 감염병 질환 백신 후보물질 개발 목적. 질환 타깃 개발 후 2개 타깃 추가 옵션. taRNA는 자가증폭 RNA 기술로, 자가 복제 효소(Replicase) 인코딩 RNA 부위와 백신 항원 인코딩 RNA 부위를 '분리'하여 trans로 전달하는 시스템. 기존 mRNA보다 적은 용량으로 강한 항원 발현이 가능함.
- Amplitude 는 2022년에 설립된 미국 바이오텍으로, ARCH Venture Partners 와 Gates Foundation이 투자하였고, Lilly Gateway Labs의 입주사임.

[8/24] 한미약품, 소위 근육증가제 HM17321(LA-UCN2)의 Genentech에 기술이전(최대 \$2.305B 규모)

- HM17321(LA-UCN2) 기술이전 계약 체결. 상대는 Roche의 100% 자회사인 Genentech이고, 선금금 \$190M, 마일스톤 \$2.115B를 포함하는 계약 (로열티 별도).
- HM17321은 CRF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장기 지속형 UCN2 유사체로, 근육을 보존하면서 체중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짐. 미국에서 임상1a상 진행 중으로 SAD 단계를 마치고 MAD에 있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선금금과 계약 규모는 상당히 큰 수준.

[8/26] SK바이오팜, Biohaven의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 Opakalim 기술 도입(규모 약 \$795M)

- Opakalim(BHV-7000)은 경구용 저분자 화합물로,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임. 이번 계약은 그 외 칼륨채널(Kv7) 활성화제 화합물 및 Kv7 Discovery Platform에 대한 권리도 포함함. Opakalim은 FDA 허가 신청을 염두한 두 개의 Pivotal 임상2/3상 진행 중(RISE2, RISE3)으로, RISE3 타블라인은 올해 하반기 중 공개될 예정.
- 총 계약 규모의 약 50%인 선금금 \$400M을 지급하는 조건이나, Kv7 활성화제는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후보물질이고, 현재 3상인데다 뇌전증 전부터 우울증 등의 임상2상에서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했음을 고려하면 적절한 수준이라는 판단.

[8/19] Moderna-Merck, mRNA 암백신의 흑색종에 대한 임상3상 성공

- 두 회사가 공동개발 중인 mRNA 항암제 intismeran에 대한 임상 3상 INTerpath-001 결과가 성공적임을 발표함. 흑색종을 완전히 절제한 환자 총 1,137명 대상 무작위·이중맹검으로 Keytruda 병용으로 투약하였을 때, 재발이 없는 생존율인 RFS와 원격전이 없는 생존율 DMFS를 통계적 그리고 임상적으로 의미있게 개선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보아, 가까운 학회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임.
- intismeran은 34종의 신생항원을 표적 삼도록 설계된 mRNA 기반 치료제로, 개인 맞춤형으로 개발. 종양 검체 확보 후, 환자 맞춤으로 설계하여 투여까지 약 6주(needle-to-needle) 소요. 이번 임상 성과는 항암제에서 새로운 modality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항후 폐암, 방광암, 신장암 등 미충족 수요가 강한 주요 고형암 대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음.

[8/28] BioNTech/Roche, 개인맞춤형 mRNA 대장암 백신 2상 중단했으나 병용은 진행할 것

- Moderna/Merck의 성과와 반대로 BioNTech/Roche는 대장암 항암백신으로 개발하던 Cevumeran(BNT122)의 임상2상 시험(BNT122-01)을 중단하기로 결정. 이 임상은 순환 종양 DNA(ctDNA) 양성 외과적 절제 2기 또는 3기 직장결장암 환자들 대상 보조 단독요법제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데이터의 일관성 부족과 유효성 부족으로 DSMB(사외자료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에서 임상 중단 권고. 안전성 이슈는 없었음.
- Moderna/Merck과의 차이점은 면역항암제와 병용하였는지 여부임. BioNTech/Roche도 췌장암 선암종(PDAC) 치료 목적의 면역관문저해제, 화학항암제와의 병용 임상인 IMcode003(2상)은 계속 진행할 계획

[8/20] 삼양바이오팜, mRNA 암 백신 전달체 '나노레디' 관련 학회 논문 언급

-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음을 언급(2026년7월 18일 공개). 나노레디는 유전자전달체 플랫폼인 SENS 중 하나로, 자체 개발한 지질과 생분해성 고분자를 결합해 조합한 나노입자임. 영양류에서 비장 수지상세포 선택적 전달과 T세포 면역반응을 확인함.
- 준비형 전달체로써,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환자의 mRNA가 준비되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됨. 논문에는 비교 대상 LNP 대비 mRNA 적재량이 약 20배 더 많음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보여줌.

[8/28] 기등재 제네릭 약가 인하, 내년 4월로 연기

- 1) 기존에 등재된 복제약(제네릭)의 약가 인하 시점을 내년 4월로 늦춤(오리지널 대비 최대 53.55%에서 51%로 할인폭 증가), 2) 이후 단계적으로 45%까지 인하될 예정이며 2단계 약가 인하는 기존 계획대로 2030년 시작해 2036년까지 진행하는 것은 동일, 3) 혁신형 제약사 지정 일정을 하반기에서 12월로 지정.
- 이번 약가 인하로, 제약업계는 연간 피해 규모가 최대 약 3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8/28] 삼성바이오로직스, 3조원 유상증자 결정

- 유상증자로 조달한 금액은 Polypeptide사 인수 자금 전액과 6공장 증설 비용 일부로 사용될 것. 현금성 자산 2.1조원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유는 '34년까지 약 15조에 이르는 Polypeptide 인수 등 modality 확대, 생산 시설 증설, 미국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배정받은 물량 전부에 대해 청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22년 유증에도 약 2조원의 출자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부에 대해 청약할 여력은 충분할 것

[8/28] Cstone/리가캠바이오/에이비엘바이오, 1L DLBCL 대상 ADC의 CR 100% 확인

- 1L DLBCL 치료제로 개발 중인 CS5001이 임상1b상 중0 40~90μg/kg 모든 용량군서 완전관해 100%를 달성함. 총 31명 투약하였고, 표준치료법인 R-CHOP과 병용 투약함. 다만 최저 용량에서도 완전관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위험 대비 이점을 평가하고 최적의 용량과 투약주기를 확정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
- CS5001은 에이비엘바이오가 개발한 ROR1 타겟 항체에 리가캠바이오의 ConjuAll 기술을 이용하여 페이로드로 pro-PBD를 적용한 ADC임.

[8/28] Roche/Genentech, DualityBio의 차세대 ADC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최대 약 \$1B 규모)

- 계약구조는 선금금 \$45M, 마일스톤 \$1B 이상을 포함(로열티 별도). DualityBio는 Genentech이 지정한 표적에 대해 ADC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임상1a까지 진행하고, Genentech은 이후 임상 및 상업화를 진행할 것.
- DualityBio는 이중페이로드 플랫폼인 DUPAC을 보유. 최근 이슈가 되는 Topo1 저해제 내성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도표 17. 2026년 주요 학회 일정 (추가 확인 후 Biweekly로 업데이트 됨, 밑줄은 이번 발간에서 업데이트 된 것)

월	개최일	학회명	약자	개최지	비고
9월	09월 12일	WCLC (세계 폐암학회)	2026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	Seoul, Korea	보로노이, 유한양행, 에스티큐브
	09월 28일	EASD (유럽 당뇨병학회)	62th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Annual Meeting	Milan, Italy	관련기업: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HK이노엔, 대웅제약
10월	10월 12일	World ADC-USA (세계 ADC학회)	World ADC San Diego 2026	San Diego, USA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10월 23일	ESMO (유럽 종양학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Madrid, Spain	리가켄바이오, 에임드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Compass), 큐리언트 (관련기업: 한미약품, 지아이 이노베이션, 에스티큐브, 보로노이 등)
11월	11월 04일	SITC (국제면역항암학회)	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	Phoenix, AZ	관련기업: 셀트리온, 한미약품, 에이비엘바이오, 지아이 이노베이션, HLB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메드팩토 등
	11월 09일	Bio Europe (바이오 파트너쉽 유럽 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Cologne, Germany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11월 05일	AASLD (미국 간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Denver, CO	관련기업: 디앤디파마텍,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동아ST
	11월 14일	Obesity Week (비만학회)	Obesity Week2026	Washington, DC	디앤디파마텍 (관련기업: 한미약품, 올릭스, 동아ST, 대웅제약 등)
12월	12월 04일	AES (미국 뇌전증학회 연례회의)	American Epilepsy Society 2026	Denver, CO	관련기업: SK바이오팜 (Biohaven)
	12월 08일	SABCS (샌안토니오 유방암 학회)	San Antonio Breast Cancer Symposium	Texas, USA	리가켄바이오(KSUDA)
	12월 16일	CTAD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Clinical Trials on Alzheimer's Disease	Boston, USA	관련기업: 오스코텍, 에이비엘바이오
	12월 12일	ASH (미국 혈액학회)	ASH 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New Orleans, LA	리가켄바이오(KSUDA) (관련기업: 오름테라퓨틱, 애플클론, 지씨셀, 네오이문텍 등)

주: "관련기업"은 '25년에 참가했거나 파이프라인 상 관련은 있으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기업

자료: 하나증권

도표 18. 국내 주요 제약사 실적 컨센서스(2026.08.31 기준)

(단위: 십억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3Q25	2Q26	3Q26F	2025	2026F	3Q25	2Q26	3Q26F	2025	2026F
셀트리온	43,941	1,029.0	1,393.7	1,447.7	4,162.5	5,530.4	301.4	451.8	508.9	1,168.5	1,855.0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70,270	2,234.6	1,320.9	1,337.9 (F.1,452.2)	4,557.0	5,495.1 (F.5,601.9)	783.7	586.4	604.0 (F.642.8)	2,069.2	2,416.2 (F.2,446.0)
삼성에피소홀딩스 (TP: 620,000원)	9,630	nr	391.9	480.1 (F.488.3)	251.7	1,857.7 (F.1,867.0)	nr	58.7	63.9 (F.74.9)	-63.6	246.8 (F.256.6)
유한양행	6,162	570.0	639.5	603.9	2,186.6	2,346.6	22.0	66.9	30.4	104.4	130.0
녹십자	1,509	609.5	421.2	588.4	1,991.3	1,988.1	29.2	1.7	33.6	69.2	72.6
한미약품 (TP: 660,000원)	6,309	362.4	467.3	431.9 (F.407.0)	1,547.5	1,759.7 (F.1,716.5)	55.1	131.1	91.6 (F.38.6)	257.8	366.8 (F.284.2)
대웅제약	1,472	411.8	448.5	461.3	1,570.9	1,665.7	56.9	68.1	87.1	196.8	231.1
HK이노엔	1,220	260.8	267.2	275.2	1,063.2	1,098.5	25.9	30.0	31.4	110.9	130.4
종근당	944	429.8	478.5	476.9	1,692.4	1,879.9	21.0	18.6	19.1	80.6	77.3
휴온스글로벌	330	211.2	214.1	nr	847.5	nr	20.3	19.5	nr	90.6	nr
동아에스티	370	215.9	224.7	225.9	808.8	845.7	14.0	6.3	10.6	0.6	41.8
보령	778	280.0	279.6	nr	1,017.4	nr	29.4	23.8	nr	65.1	nr
SK바이오팜 (TP: 160,000원)	6,837	191.7	247.4	253.6 (F. 252.0)	706.7	977.8 (F. 972.7)	70.1	97.1	89.8 (F. 96.3)	203.9	347.0 (F. 340.1)
동국제약	1,006	226.8	258.9	262.1	926.9	1,050.1	24.8	26.1	27.3	96.6	109.3
에스티팜 (TP: 190,000원)	2,196	81.9	108.5	99.6 (F.101.5)	331.7	417.7 (F.423.6)	14.7	18.3	18.0 (F.17.8)	54.9	75.3 (F.78.3)
셀트리온제약	1,852	138.2	153.3	nr	536.4	nr	16.1	19.3	nr	56.1	nr
JW중외제약	657	200.0	222.0	nr	775.3	nr	32.0	33.3	nr	94.5	nr
일동제약	467	145.5	147.9	153.7	566.9	597.5	6.8	2.0	8.0	19.5	34.5
대원제약	178	143.9	152.8	144.5	605.4	625.0	-10.4	-0.0	4.3	3.5	17.3
제일약품	157	134.8	146.6	nr	567.2	nr	9.8	-7.0	nr	20.7	nr
바이넥스	228	45.4	37.8	nr	168.5	190.0	0.2	-9.2	nr	-4.5	-2.0

주1: 2Q26→3Q26F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종목은 녹색 음영 표시

주2: Coverage 종목의 Forecasting은 "F."으로 표시

주3: 시총 상위 종목 중 지주사, 60% 이상의 매출이 의료/미용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 종목 등은 제외

자료: QuantilWise, FnGuide, 하나증권

Coverage 및 관심 종목 월간 코멘트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3조원 유상증자를 통해 보여주는 '34년까지의 대규모 투자

- '26년 가이던스: 매출액 +15~20% (원/달러 환율 1,400원), 3Q26에 미국 록빌 공장의 매출 기여(3Q는 1천억원 예상)로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 높음. 이익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음. 7/20일에 인수 공시된 PolyPeptide Group으로부터의 매출은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 반면, 노조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회사 추정치 1,500억이고, 이는 3Q26에 반영될 예정. 8/14일 노사가 사후조정에 합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게 될 것. 일정은 구체적이지 않으나, 노조쟁의가 종결되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게 됨.
- 8/28일 약3조원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34년까지 이번 조달 목적인 Polypeptide 인수와 6공장 증설을 포함하여 총 약15조원의 투자를 통해 신규 modality 확보와 설비 투자를 감행할 것. '22년 유상증자 이후 회사의 성장세로 보아 이번 유증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할 적기라는 판단. (리포트 참고: <https://bully.kr/8lycjVS>)

삼성에피스홀딩스 (TP 620,000원): (변동 없음)

- '26년 가이던스: 바이오에피스 기준 매출액 +10% 이상, OPM 20% 이상 유지.
- 3Q26F 매출 4,893억원(YoY+20.4%), 영업이익 1,083억원(YoY-16.1%, OPM22.1%) 전망. 3Q에는 Biogen 향으로 SB2(레미케이드BS)의 유럽 판권 연장에 따른 마일스톤 76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2026년 연 매출액 YoY+11.9%, OPM21.7%로 가이던스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
- 8월 MSCI 리밸런싱에서 유통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편출 결정되었고, 리밸런싱일은 8/31일이므로 효과는 9/1일부터 반영.
- 키트루다BS 국내 출시를 위해 허가신청 및 MSD 상대로 동결건조제형 특허(특허등록번호 KR10-2031020, 존속기간 2032년3월29일)에 대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 특허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 국내 키트루다 물질특허는 2028년 6월 만료 예정임. 이에 대비하여 제형, 제조방법, 투여방법, 용도/용법특허 등에 대해 대응할 것이고, 그에 따라 MSD측에서 침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있음(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는 일반적임).

알테오젠 (TP 무상증자 반영 시 450,000원): Qlex 판매에 따른 sales milestone \$25M 수령

- 1H26 Qlex 매출액 \$590에 대해 sales milestone \$25M를 수령하게 됨(매출 인식은 2Q26). 당사 하반기 누적 매출액 전망치는 \$4B이고, \$0.5B 이상 달성 기준으로 첫 번째 sales milestone 수령하였으므로, 4Q까지 분기 마다 sales milestone을 수령할 가능성 매우 높음.
- 8/5일 선금금 및 마일스톤을 포함한 \$365M(약5,219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로열티 별도)했고, 신규 modality인 바이오의약품으로 modality도 계속 확장 중. 향후 추가 기술이전은 계속 될 것이고, 이러한 성장세와 이익 안정성을 보아 국민성장펀드 선정 가능성도 높아짐.
- 8/21일 대전 둔곡에 2532억 투입하여 'ALT-B4', 'ALT-L9' 등을 생산할 것임을 공시. 당사는 ALT-B4 기술이전에서 물질 독점권만 허용하고, 생산 권리는 동사가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생산 시설은 '28년 완공 목표로, 현재 CMO 생산을 직접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이익을 증가할 전망.

한미약품 (TP 660,000원, 상향): HM17321의 대규모 기술이전, 남은 것은 MASH

- '26년 가이던스: 매출액 10% 이상 성장, 이익률 15% 이상 달성, 기술이전 1건 이상 달성(완료).
- 8/24일 HM17321을 Roche의 100% 자회사인 Genentech에 기술이전함. 계약금 \$190M, 최대 마일스톤 \$2,115M (로열티 별도, %미공개)을 포함하는 구조. 총 계약 규모의 8.2%로 임상1a 중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평균 이상의 선금금을 달성함. 동사가 보유한 가장 매력적인 파이프라인이 기술이전 되었지만, 삼중작용제인 HM15275도 비만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단일 작용제만 보유한 기업에는 매력적일 것으로 판단. (리포트 참고: <https://bully.kr/3jAt1y3>)
- 한편, 예상 이상의 기술이전에도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이는 11월 초로 예상되는 MSD의 MASH 치료제인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개발 지속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 판단. 그러나 이미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반환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될 가능성 높음. 오히려 시장 예상과 달리 개발을 지속하게 된다면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것.

SK바이오팜 (TP 160,000원, 상향): Opakalim을 인수함으로써 Azetukalner 견제와 넥스트 엑스코프리 확보를 한 번에

- '26년 가이던스: 엑스코프리 US 550mn~580mn\$(YoY+29%, 환율 1395원/달러), 기타매출 1,100억원(YoY+44%). 신약 후보물질 5개 이상 추가됨에 따라 R&D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이던스 상 연간 예상 판관비가 5,700억원으로 증가(R&D만 전년 대비 550억원 증가).
- 8/18일 인도 MSN Laboratories와 Xcopri 제네릭 관련 특허분쟁 첫 합의. 물질특허는 '32년 10월 만료 예정이나 후속 특허가 다수 존재하므로, 합의를 통해 '32년 이후에도 미국 시장 독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 이러한 합의는 MSN 입장에서 후속 특허 모두와 다투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음.
- 8/26일 Biohaven으로부터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인 Opakalim(BHV-7000)을 도입하는 계약 체결. Opakalim은 Xenon의 Azetukalner와 같은 칼륨 채널(Kv7) 선택적 활성제. Opakalim은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약물로, 약효에 초점을 맞춘 Cenobamate와 다른 시장 포지션을 가짐. 이는 지난 번 리포트에서 설명한 Xenon의 Azetukalner가 Cenobamate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설명한 것과 일치함. 계약 구조가 전체 규모의 약 50%를 선금금으로 지불하는 것이어서 잠깐 시장을 놀라게 하였으나, Opakalim이 안전한 물질로써 중요한 포지션을 갖는 만큼, 우울증 등 기존의 임상2에서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한 것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데이터 비용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판단. 오히려 pivotal 임상2/3상 2개를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총 계약 규모는 저렴한 수준. (리포트 참고: <https://bully.kr/6MuGfNH>)

리가캠바이오 (TP 220,000원): CS5001의 임상 속도는 느려졌으나, 완전관해 100% 달성으로 전략적 선택

- CStone에 기술이전된 ROR1 ADC인 CS5001이 1L DLBCL에서 완전관해 100% 달성. 최저 용량에서도 완전관해를 달성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장기적인 위험 대비 이점을 평가하고 최적의 용량과 투약주기를 확정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실시적으로 중단할 것.
- 하반기 서브라이선스 가능성 높음. TROP2 ADC (LCB84)의 임상1/2상 업데이트 및 그에 따른 옵션 행사 이벤트도 중요. MSD는 PD-1×VEGF + TROP2 병용 임상을 계획하고 있어, TROP2 ADC의 병용 전략이 향후 주목받을 전망.
- 하반기에는 1) HER2 ADC (LCB14)의 중국3상 최종 결과 확인 및 글로벌 임상1b의 Enhertu 내성 유방암 환자를 포함한 중간 결과 발표, 2) ROR1 ADC (LCB71)의 임상1b 추가 코호트 중간 결과 발표(임상은 중단해도 CR100%이므로 데이터 발표할 것으로 예상), 3) CD19 ADC (LCB73) 임상1a 중간 결과 발표할 예정.

디앤디파마텍 (Not Rated): 동사도 UCN2 유사체 개발 중

- Pfizer와는 이중 작용제(GLP-1/GIP)인 MET-8750는 계속 개발 중.
- 하반기는 MASH 치료제 DD01의 기술이전 가능성(DD와 Term Sheet을 논의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4Q26~1Q27로 추정, Efimosfermin의 L/O 규모 약 3조원임을 참고), 2) NLY02 (퇴행성 신경질환 타겟, RPK2 선택적 저해) 기술이전이 기대할 이벤트.
- 한편, 한미약품이 Genentech에 기술이전한 HM17321과 같은 UCN2 유사체를 동사도 개발 중. 오는 11월 Obesity Week에서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경구제는 아님)

지아이이노베이션 (Not Rated): 'GI-101A', 요로상피암 FDA 패스트트랙 지정

- GI-101/101a 키트루다 병용 2상 진행 중으로, 요로상피암에 대해 FDA 패스트트랙 지정됨. 단독 1상은 종료 후 ASCO에서 데이터 발표함.
- GI-102: ①SC 단독 투여 1b상(한국/미국), ②GI-102+키트루다 투약 2a상(한국/미국), ③GI-102+엔허투 투약 2a상(미국) 진행 중. ①번 임상은 연내 데이터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종료 시점과 학회 발표 등은 아직 미정
-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GI-301의 임상2상(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150명 대상, 12주간 약물군 및 위약군으로 투약하고, 한국/유럽/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 진행 계획)도 손조롭게 환자 모집 중이고, 기술이전도 꾸준히 시도 중.

인투셀 (Not Rated): (변동 없음)

- 바이오에피스가 Nectin-4 타겟 항체에 Nxt3를 적용한 ADC(SBE303)에 대한 물질 권리 확보를 위해 본계약(후속 계약)을 체결함. 계약 규모나 구조는 비공개이나, 지금까지의 관계가 단순한 공동개발 형태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함. 바이오에피스는 고휘암 환자 149명에 대해 글로벌 임상1상을 진행 중(NCT07524348). '23년 12월 계약 당시 다섯 개 표적에 대한 연구를 염두하였으나, 나머지 4개에 대한 후속 개발도 기대. 다만 human data를 확인한 후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27년에 추가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자체 개발 중인 신약 TC-6146RO에 대한 국내와 미국에 임상1상도 진행 중.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없이 OPHAS 링커의 기술력을 입증할 전망이다. 주목할 가치가 높음. 회사는 새로 꾸려진 BD팀을 통해 Bio-Europe, Bio-China, Bio-USA 등 상반기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꾸준히 기술이전을 시도할 것.

셀비온 (Not Rated): (변동 없음)

- 7/30일 키트루다 병용 임상(국내)의 첫 환자 투약이 이루어짐. mCRPC 환자 30명 대상 pre-Taxane 대상 임상하여 2L 진입 노릴 것. 키트루다는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병용 투여 시 플루빅토 단독 투여 대비 mOS를 추가 12.9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Lu-Pocuvotide는 P2에서 플루빅토 대비 낮은 혈구 독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효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조건부승인은 예상 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GIFT track으로 국내 승인을 획득한 세포치료제 기업 사례가 신청 후 1년4개월이었는데, 동사는 물질이라 승인까지의 난이도가 낮은 걸을 고려하면 연내 조건부승인을 기대할 수 있음 ('25년12월 신청 → 타 기업 사례로 보면 '27년4월이나 그 보다 빠를 것)

펩트론 (Not Rated): (변동 없음)

- Lilly가 원하는 장기지속형 제제에 활성물질로 Tirzepatide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이 짙어지며, 주가가 크게 하락함. 플랫폼기술평가계약은 10/7까지임.
- 8/25일 PT403의 국내 임상1상 IND 신청.

인벤티지랩 (Not Rated): (변동 없음)

- 베링거인겔하임에 전달받은 후보물질에 대한 두 번째 제형도 개발하여 전달하였고, 기대하는 타임라인대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3분기에 본계약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음. 그 외 유럽 소재 파트너사와 제조 생산 시설 구축 투자금을 포함하여 위탁생산계약을 논의 중(2가지 품목, 수백억원/년 규모 예상). 유럽 현지 site로의 Scale-out도 함께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안정적인 Cash 창출은 물론, CDMO 기술과 Scale 확장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고농도 항체 SC 기술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짐. 고농도 항체 SC 기술은 '25년 10월 Halozyme이 Elektrofi를 인수하고, 이후 Vertex와 L/O 체결하며 알려짐.

지투지바이오 (Not Rated): (변동 없음)

- 1,500억원 규모의 CPS/CB 자금 조달에 성공(발행일 2026년3월23일). CPS 750억원, CB 750억원. 삼성에피소홀딩스의 CB 200억원 투자도 이어짐.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소넥스랩, 지투지바이오 간의 3자 계약도 체결함 (장기지속형의 Semaglutide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
- 동사도 셀트리온과 고농도 항체 SC 플랫폼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에스티팜 (TP 190,000원): 9/8일 RNA 국제 심포지엄 RISC 개최

- '26년 2분기 실적에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지만, 매출 4Q>2Q>3Q>1Q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4Q까지 실적 성장은 분명할 것. 3Q에 OPM이 다시 17% 대로 회복되며 주가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
- Arrowhead의 Plozasiran의 sHTG 3상 데이터가 고객사인 Inoisy의 Olezarsen 대비 우수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음. Olezarsen항 수주는 '27년까지 납기일이고 이 때 Plozasiran은 매출 발생하지 않음('28년 매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그 사이 수천억대의 상업화 올리고 수주가 따라줄지 여부가 중요해짐.
- 한편, 9/8일 동사 주최로 RNA 국제 심포지엄인 RISC를 개최. Alnylam 창립 CEO, Avidity의 CSO가 주요 연자로 참석할 예정. 동사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주요 연사가 속한 기업들은 주요 고객사일 것으로 추정됨.

울릭스 (Not Rated): 8/31일부터 CPS 전환 청구 개시, 서서히 주가 안정화되면 4분기를 바라볼 것

- 탈모 치료제(OLX104C)의 호주 1b상에서 마지막 환자 투여 및 관찰을 종료. 연내 2a상 투여할 것 (OLX104C는 임상 1b/2a상으로 진행 중). 올해 4분기 경 2a상 진행과 함께 1b 데이터의 공개도 기대함.
- 그 외 Lilly와 MASH/비만 치료제 개발 계약에 따른 추가 성과 (Lilly의 옵션행사), 유베르나의 시장 출시 계획 등도 4Q까지 이어서 기대할 이벤트. 지방세포를 직접 타겟하는 OLX501A의 비만 원숭이 데이터는 6/22일에 공개된 것으로 고려하면 기술이전 시기는 이르더라도 1H27로 전망.
- '25년8월에 발행한 CPS의 전환청구가능일이 8/31일에 첫 번째 전환청구가 공시됨. 신주상장예정일은 9/15일이고, 1,166,430주가 상장될 예정(오버행 5.2%). 남은 전환가능 주식수는 819,221주. 남은 전환가능 주식의 전환 여부와 신주상장예정일 이후 주가가 서서히 안정화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4분기 주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음을 참고하면 좋을 것.

알지노믹스 (Not Rated): Lilly Gateway Labs 입주와 9/8일 R&D day 개최

- 8/24일 회사 공지를 통해 Lilly Gateway Labs 입주를 밝힘. 입주 후 200개 이상의 타겟 질환에 대한 유전자뱅크를 기반으로 RNA 치환효소 플랫폼 기반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
- 오는 9/8일 R&D day를 개최하고, 파이프라인의 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소통할 계획. ESMO를 포함하여 하반기 주요 학회 일정에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 가능할 것으로 기대.

도표 19. Coverage 및 관심 종목의 3Q26-4Q26 이벤트(2026.08.31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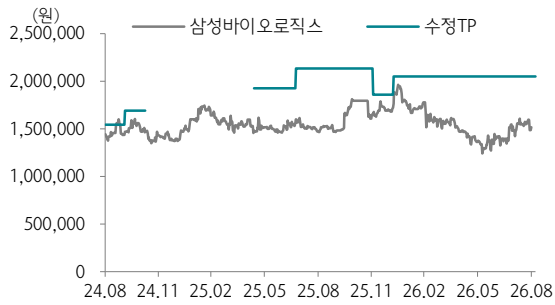
(단위: 원)

기업명	TP	주가	상승 여력	3Q26	4Q26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50,000	1,486,000	38%	• CAPEX 확대, 수주, 노사 분쟁 종료	• 3Q26 예상실적발표 10월 초 (가이던스 상향) • 6공장 착공	• -
삼성에프스홀딩스	620,000	373,500	66%	• -	• 3Q26 예상실적발표 10월	• 자회사 확대, 학회 발표 등 주목 • SBE303 발표 1H27 전망
알테오젠	무상증자 반영 450,000	320,000	40.6%	•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 기대(투자, 승강제 등)	• 3Q26 실적발표 11월 초	• 코스닥 잔류 및 무상증자 결정 (7/16) • J-code 발표로 인한 처방 수 및 WAC 상승 확인됨(4월부터 MoM 상승 중)
한미약품	660,000	509,000	30%	• 에페글레타이드 국내 허가	• 3Q26 예상실적발표 10월 초 • 에피노페그듀타이드(MASH) P2b Top line 발표 • ESMO 관련	• MASH 학회 발표하는 경우 11/5 AASLD 유력 (F4 임상 포함 발표할 것으로 예상) • 에페글레타이드 본격적인 판매는 27년부터 기대
SK바이오팜	160,000	88,000	82%	• -	• 3Q26 실적발표 11월 초 • Opakalim 3상 탑라인 발표 • 12월 AES(예상)	• 2 nd Product 도입 완료: Opakalim
리가켄바이오	220,000	101,000	118%	•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주 (승강제) • J&J의 2상 진입 소식	• 파트너사 서브라이선스 • 10월 ESMO 발표 • 12월 ASH, SABCS 발표	• 각 파트너사의 개별적 R&D 성과 공개 기대 • 임상 단계 상승 예정 파트너(마일스톤 수령): Ono(LCB97, 수령), SOTIO, IKSUDA
에스티팜	190,000	110,200	72%	• 고객사 2곳 3상 탑라인 발표 • 수주 기대 (혈액암 추정) •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주 (투자, 승강제 등)	• -	• 하반기 고객사 2곳 3상 탑라인 발표 기대(동맥경화증, 만성B형간염)
디앤디파마텍	NR	55,600	-	• NLY-01 L/O 기대	• DD01(MASH) L/O 기대 (11월 말~12월) • 11월 Obesity Week	• Pfizer와의 용역계약은 계약금액 \$1.2M→\$1.7M로 증액하고, 계약기간 '26.11→'28.02로 연장
지아이이노베이션	NR	8,090	-	• -	• ESMO 관련 • GI-102 SC제형(단독) P1b 결과 발표	• GI-102: SC제형(단독) P1b, 키트루다 병용 P1/2,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단독은 1H26, 그 외 '26년 내 데이터 확인 예상) •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올릭스	NR	105,900	-	• 8/31 CPS 전환가농일 시작	• Lilly의 P2 진입 확인 및 옵션 행사 • OLX104C(탈모) 1b상 결과 • 유베르나(탈모예방화장품) 시장 출시	• -
알지노믹스	NR	31,350	-	• 9/8 R&D day 개최 예정	• ESMO 관련	• ESMO 채택 시 교모세포종 데이터 공개할 것으로 예상
인투셀	NR	19,040	-	• -	• -	• 자체 개발 신약 중간 결과 발표는 1H27로 예상 • SBE303 본계약 체결 (7/22) • 학회 발표 보다는 파트너십 행사를 통한 L/O 논의(Bio-USA/ Europe/ China 등)에 집중할 것
셀비온	NR	13,310	-	• 국내 조건부허가 승인(GIFT)	• -	• 키트루다 병용 투여에 따른 기술이전 기대감 보유 (P1 중간결과 확인이 가능한 1H27 이후 예상)
펩트론	NR	192,400	-	• -	• PT403 국내 임상1상 승인	• Lilly와의 평가기간은 정정된 공시 상 최대 '26년 10월7일로 연기됨
인벤티지랩	NR	29,050	-	• BI의 제형에 대한 피드백 기대 • V사의 동물용 장기지속형 CDMO 계약 체결 기대	• -	• 고용량 SC 제형에 관한 관심 높아짐
지투지바이오	NR	43,650	-	• -	• -	• 고용량 SC 제형 - 셀트리온 MOU

자료: 각 사,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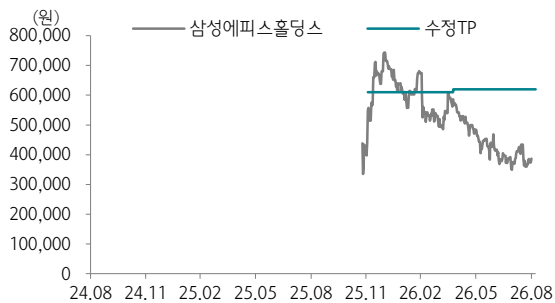
삼성바이오로직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7	BUY	2,050,000		
25.12.3	BUY	1,860,000	-8.44%	-3.76%
25.7.24	BUY	2,134,029	-24.69%	-15.03%
25.5.13	BUY	1,927,985	-21.56%	-16.03%
25.4.16	담당자 변경		-	-
24.10.4	BUY	1,692,506	-10.08%	3.04%
24.7.25	BUY	1,545,331	-7.83%	3.52%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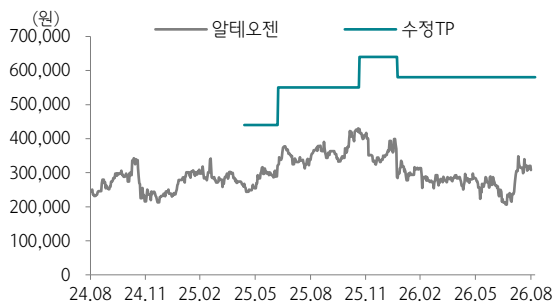
삼성에프스홀딩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27	BUY	620,000		
26.4.24	Neutral	620,000	-27.14%	-8.39%
26.2.9	Neutral	610,000	-8.06%	11.64%
25.12.3	BUY	610,000	5.08%	21.80%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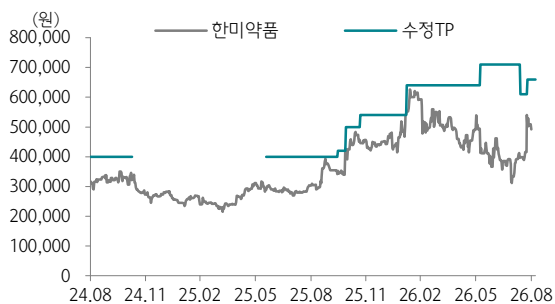
알테오젠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2	BUY	580,000		
25.11.20	BUY	640,000		
25.7.8	BUY	550,000		
25.5.13	BUY	440,000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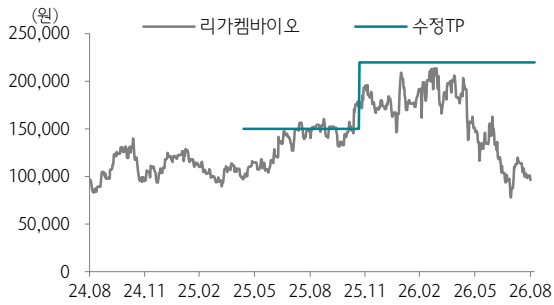
한미약품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8.25	BUY	660,000		
26.8.13	BUY	610,000	-30.78%	-11.48%
26.6.8	BUY	710,000	-44.37%	-35.00%
26.2.6	BUY	640,000	-20.20%	-2.19%
25.11.21	BUY	540,000	-15.90%	0.19%
25.10.28	BUY	500,000	-10.58%	-3.40%
25.10.15	BUY	420,000	-15.30%	1.90%
25.6.18	BUY	400,000	-24.18%	-1.75%
25.6.9	Not Rated	-	-	-
25.4.16	담당자 변경		-	-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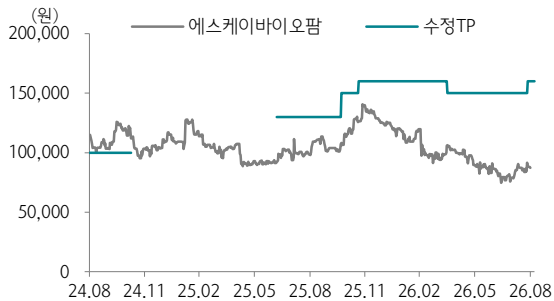
리가캠바이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1	BUY	220,000		
25.5.13	BUY	150,000	-8.77%	19.00%
23.11.16	Not Rated	-	-	-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스케이바이오팜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8.27	BUY	160,000		
26.4.16	BUY	150,000	-40.65%	-29.67%
25.11.20	BUY	160,000	-27.89%	-12.06%
25.10.22	BUY	150,000	-20.38%	-13.13%
25.7.7	BUY	130,000	-21.21%	-12.69%
25.4.16	담당자 변경	-	-	-
23.11.10	BUY	100,000	-2.17%	27.90%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스티팜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29	BUY	190,000		
26.3.9	BUY	210,000	-35.21%	-19.67%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9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6년 9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9%	1.81%	0.00%	100%

* 기준일: 2026년 08월 29일